

아들같은 전·의경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서울대교구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의 전·의경들에 대한
자살예방 생명사랑 활동수기



이계상 분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대부님, 제가 보호대원으로 맡고 있는 신병 한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대부님이 특별히 면담을 해 주세요.”

서울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천주교 신자인 안드레아 고참 대원이 핸드폰으로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다. 부랴부랴 경찰서 행정반에 들리니 해당 지휘관도 걱정을 하면서 그 신병 대원의 특별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서 내 천주교 공소인 경신실에서 그 대원을 별도로 만나보니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고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2주 전 4명의 신병들과 함께 이곳에 전입해온 대원으로서,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내성적 성격인데다 최근에는 거의 잠도 못자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마저 다쳐 더욱 힘들어지게 되다보니 급기야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가만히 안아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앉아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대원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 홀어머니와 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완벽한 성격으로 고참들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꾸지람을 들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 이 대원이 신병 인성교육 때 장래 희망을 물으니 용감하게도 “기업체의 CEO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기본적으로 성장 환경이 정상적이지 못한데다 무언가 자신의 꿈은 크고 자존심이 강한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는 생각에 “신병 때는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차분하게 손을 잡으면서 우선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사소한 문제에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비교를 해가며 삶의 얘기를 해 나갔다.

약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머리로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듯 했으나 감정적인 상태는 여전한 듯 했다. 두 팔로 꼭 안아주고 돌려보내고 나서 행정반 지휘관과 안드레아 고참 대원을 만나 상의했다. 앞으로 이 대원이 혹시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야! 나도 신병 때는 그랬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라는 식으로 격려를 해주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그 후 이 대원은 서서히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예비자 교리까지 받은 후 미카엘 천사로 다시 태어났다. 1년에 3회 명동성당에서 실시하는 서울 시내 전·의경들의 세례식에 참석하여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때 저의 대자까지 되었다. 그 후 미카엘 대원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였으며 부산의 가톨릭대학교에 복학한 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군 생활! 젊은이들에게는 이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의 자세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경직된 부대환경 속

에서 시달림을 받는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하는 군부대와 전·의경 부대에서 이러한 현상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가장 군기가 강하다는 연평도 해병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고 삶의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결국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날 한국의 20~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첫 번째를 차지하는 자살을 막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자살률이 OECD국가 1위라는 오명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살의 위험요인이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삶의 만족감 저하, 문제해결능력 저하, 낮은 자아 존중감, 소외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우울과 스트레스가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들 자살의 가장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의학적, 심리학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21세기 들어 교황청의 사목방침을 바탕으로 교구의 생명위원회 발족 등을 계기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생명경시 풍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모든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루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론적 분석과 그럴듯한 이상적인 대책은 언뜻 보기에는 완전한 그림인 것 같으나, 추상화가 아닌 생동감 있는 실체를 나타낸 사실화가 일반 관람객에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경찰사목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실체적 현실을 거의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해오고 있다.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 기동단과 경찰서에는 전문 심리상담관들이 전·의경들의 모든 인적 사항을 컴퓨터 파일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대원들의 자살충동 사건이나 심각한 심리적 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부대 지휘관들은 그들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선교사들을 찾

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추상화와 실제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경찰사목에서는 2005년부터 자살예방 생명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 Therapy, H.A.T.)를 경찰기관에 도입하여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H.A.T.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문학, 율동 등 전 예술매체를 총 동원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대원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각종 시위진압에 동원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인간학적으로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먼저 육체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고 갈등으로 얼룩져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생명의 가치를 심어주는 단계적 전략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대원들의 각종 사고가 전년도(2008년 통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인지한 경찰당국에서 H.A.T.를 정기적인 대원들의 부대적응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게 까지 되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표현예술 상담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도 자격이지만 선교사들이 부대에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원들을 감싸 안고 조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상담기술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순수한 사랑의 정신이 결집되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H.A.T.를 지도하고 생명의 가치와 군 생활의 의미를 심어주는 새로운 생명수호의 전령사가 되었으며 해당 부대에서 많은 기적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많은 대원들이 자살의 문턱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소를 찾은 후 이에 감사하는 감동적인 서신이 책상에 수북이 쌓여있을 정도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원중에 예비자로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대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년간 3회 약 1,000명 세례)인 것은 당연하다.



경찰사목위원회 내 여성 선교사들이 대원들을 엄마처럼 감싸주면서 자살을 예방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저는 우울증이 있고 요즘은 자살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나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한 젊은 의경이 초췌한 얼굴로 찾아와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평소에 늘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니다가 며칠 전 탈영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경찰서를 발각 뒤집어 놓은 대원이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한 냉대를 받고 살아왔으며,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겪고 있는 대원이었다. “나 같은 높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2층에서 뛰어 내리려고 했어요.” 선교사는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의 장점을 살려 칭찬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는 등 몇 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 젊은이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고 그 후 신병후배들도 잘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대원으로 근무 후 제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동단에 근무하는 대원의 사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기동단의 한 대원이 부대 생활에 적응 못하고 방황하던 어느 날 철야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밤새 온 거리를 쏘다니다가 새벽녘에 상가건물에 들어가 자해를 한바있다. 손목을 두 번 그었으나 다행히 생명은 건지게 되었다. 이 대원은 “누나 셋에 외아들로, 부모로부터 지나친 사랑만 받고 자란 탓인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를 못하는 상태”였다.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격려를 받은 이 대원은 성실히 근무하고 제대를 하였다.

또 한 번은 기동단 산하 전경 중대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 대원을 우리 선교사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이 대원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길을 가다가 달리는 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 정도이니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지?”라는 물음에 “네,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시겠지요. 그러나 선생님, 제가 그러한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되지 않아요.”라고 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단다. 따라서 우리 대원도 꼭 필요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란다” 우리는 몇 개월간 그 대원과 함께해 주었고 그 후 군 생활에 잘 적응을 하면서 신병 인솔자까지 되어 천주교 모임에 신병을 인솔하고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천년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을 많이 묵상해본다. 그리스도가 당시 바리사이파들의 형식적 이론을 넘어 소외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심어주고 각종 불치의 병을 고쳐주면서 희망을 찾게 해준 것이 바로 생명수호의 기본적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21세기 오늘날 자살, 낙태, 이혼, 마약 등 반 복음적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론은 실체와 접목이 되어 그 생명력이 살아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도 단순한 신학적 이론을 넘어 바로 사랑이라는 큰 무지개로 비구름을 감쌀 때 최고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자살예방 생명수호 운동도 복음적 이론과 의학적 치료기술의 기본 바탕위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전개될 때 안락한 보금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둠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다. 사랑의 햇빛으로 자살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를 벗겨내는 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경찰사목 활동은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특히 개신교와 불교 등 이미 타 종파에서 30~40년 동안 닦아놓은 그들의 아성을 넘고 들어가기에는 10년 정도 밖에 안된 입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복음화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수호 운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젊은이들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탄생한 옥동자가 바로 H.A.T. 프로그램과 인성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분야는 자살예방 생명수호 활동이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목을 해나갈 때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는 또한 한 번 선순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저는 경찰사목 선교사이면서 표현예술상담사로서 젊은 전·의경들에게 행복의 불씨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다보

니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이다. 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아빠 같은 역할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약 3년 전 촛불시위가 극한으로 치달을 무렵 전·의경들은 거의 3개월간 시위현장에 동원되어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 등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선교사들은 간식을 싸들고 시위현장을 찾아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격려를 해주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품에 안겼던 대원들의 모습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대원들이 제일 힘들어 했던 점은 신체적 고통보다도 인격적 모욕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군 생활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격적 수모까지 당했으니 그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랴! 당시 많은 전·의경들이 시위진압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자살 유혹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온바 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신체적 부상 회복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을 넣어주는 것이었다. 군 생활의 가치와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생명사랑 인성 교육을 위해 동분서주 했던 기억이 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의사와 간호사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정말 고귀한 직업이며 자살예방은 이러한 의료인의 활동 중 가장 숭고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수호 운동의 핵심은 바로 예방이며 이 예방은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의술과 과학을 앞지르는 최상의 단어가 바로 사랑이며, 사랑이 생명존중이고 자살예방의 길임을 확신한다.